■ 방통위 '번호 이동제' 시행 일주일 앞으로

통화료 싼데다
집번호 그대로

인터넷 전화 '매력 만점'

대학생 딸이 캐나다에 유학 가 있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 권모(48·여)씨는 매일 밤 캐나다의 딸과 인터넷전화(VoIP) 스카이프로 만난다. 일반 국제전화(001)를 이용할 때에는 요금이 20만원 가까이 나왔지만 인터넷전화를 설치한 후에는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딸의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다.

영어학원 강사인 조모(43·여)씨는 매주 목요일 오전 캐나다에 있는 현지인과 30분씩 전화통화를 하면서 영어를 배운다. 출장이 잦은 직장인 최모(35)씨는 해외출장시 반드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USB폰을 가지고 다닌다. 인터넷전화 소프트웨어가 내장된 USB폰을 인터넷이 연결된 PC단자에 연결만 하면,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이거나 저렴한 인터넷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

국내 3분당 38~39원, 국제 1분당 50원
기업·일반 가정 등 가입자 빠르게 늘어

인터넷전화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전화는 얼마 전까지 주로 기업들이 통신비 절감을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엔 관세청 등 공공기관과 일반 가정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이동통신처럼 기존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가입자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인터넷전화 가입자 급증

LG데이콤은 지난해 6월 인터넷 집전화 '마이엘지(my LG)070'을 출시한 이후 1년 만에 가입자 수 70만명을 돌파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전화업체인 스카이프는 2005년 10월 국내에 진출, 지금까지 150만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했다.

기업용 인터넷전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네트웍스도 28만 가입자에 육박하고 드림라인, SK텔링크, SK네트웍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기간통신사업자도 최소 20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한 데 이어 최근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인터넷전화 가입자 증가는 초고속인터넷 발달과 함께 통화품질이 향상되고 통화료가 저렴한 전화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된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자간 통화는 무료

인터넷전화의 최대 장점은 싸다는 것. KT 집전화의 초기 가입비는 6만원, 기본료는 월 5천200원이고 하나로텔레콤 기본료는 월 4천500원인데 비해 인터넷전화는 가입비가 없는데다 기본료도 2천원으로 기존 유선전화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또 인터넷전화는 인터넷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국이 하나의 통화권으로 시외통화 개념이 없어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등 원거리 통화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LG데이콤 인터넷전화는 전국 어디나 3분당 38원이고 SK텔링크와 케이블TV사업자연합(KCT)은 3분당 39원으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시내통화료와 같거나 저렴하다. 휴대전화 가입자 통화도 기존 유선전화는 10초당 14.5원이지만 인터넷전화는 10초당 11.7원으로 싸다.

국제전화를 걸때도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1분당 50원 안팎에 쓸 수 있으며 인터넷전화 가입자간 통화료는 무료다.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려면 우선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헤드셋' 또는 'USB폰'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소프트폰'과 인터넷전화 전용 단말기를 인터넷선에 직접 연결해 사용하는 '하드폰'방식이 있다. 헤드셋은 2만~3만원, USB폰은 4만~5만원, 하드폰은 8만~20만원 정도다.

최근 하드폰은 근거리 무선랜(Wi-Fi) 기능이 있어 집안에서 전화선 없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며 통화할 수 있다. 소프트폰방식의 인터넷전화는 웹카메라를 달아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다.

◆'070' 없이 집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 활성화의 최대 걸림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던 번호이동의 문제가 이 달로 해결된다. 인터넷전화에 부여된 식별번호 '070'은 스팸발신 번호의 대명사로 인식되던 '060' 등과 유사해 소비자 호감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활성화의 최대 장벽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이르면 6월말부터 기존 집 전화번호로도 인터넷전화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저렴한 요금에도 불구하고, 번호 문제로 인터넷전화 이동을 꺼렸던 잠재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아직도 번호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리면서 기존 이동전화(당일), 유선전화(3~4일) 보다 긴 점은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인터넷전화의 '긴급통화서비스(119, 112 등)' 구현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인터넷전화·유선전화 요금비교

항목		인터넷전화			일반유선전화
		스카이프	LG텔레콤 (myLG070)	삼성네트웍스 (wyz070)	KT집전화
가입비		무료	무료	무료	6만원
월 기본료(표준형기준)		무료	2,000원	2,000원	5,200원(서울)
국내전화	시내(3분)	60원	38원	36원	39원
	시외(3분)	60원	38원	39원	-30km이내:39원 -30km초과:261원
	휴대전화(10초)	12.6원	11.7원	11.9원	14.5원
	인터넷전화 (10초)	60원 (가입자간 무료)	38원 (가입자간 무료)	39원 (가입자간 무료)	49원
국제전화 (1분)	미국	22원	50원	49원	-282원(001) -127원(00727)
	중국	22원	50원	49원	-990원(001) -324원(00727)
	일본	24원	50원	55원 (050국번 무료)	-696원(001) -252원(00727)
부가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월)	무료	1,000원	무료	1,500원
	문자메세지(건당)	91원	15원 (가입자간 10원)	15원 (가입자간 무료)	-10원(안폰끼리) -15원 (휴대폰에보낼때)
	통화연결음(월)	-	900원	-	1,000원
전화기(폰) 종류		소프트폰 하드폰	하드폰 (근거리무선)	하드폰 (근거리무선)	-일반 전화기 -지능형 전화기 (근거리무선)

〈자료: 각 업체〉

남도 우표문화제 '2008 남도우표문화제'가 20~ 24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옛 전남도의회)에서 열리고 있다. 전남체신청이 주최한 이번 남도우표문화제에는 테마별 우수작품 60여점, 우표원도 20여점 등 총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나만의 우표 현장 접수, 우표취미가 초청 우표 강좌, 우표디자이너 사인회, 우표조각 맞추기 등 다양한 우표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휴대전화 사용자 2명중 1명 꼴
지난해 단말기 새 모델로 교체

휴대전화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68.2%는 내년 말까지 새 모델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등 교체 주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대전화 및 차량용 반도체제품 개발업체인 동운아나텍은 지난 21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R&R)에 의뢰, 지난 1월 말 전국의 만 16~35세의 휴대전화 이용자 6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담은 '휴대전화 이용 행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응답자가 36.4%에 달하는 등 지난 한해동안 교체한 응답이 무려 58.2%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교체시기를 묻는 질문에 올해 안에 바꾸겠다는 응답자는 35%, 내년 중에 바꾸겠다는 응답은 33.2%로 3분의 2 이상이 내년 말까지 새 모델로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 이유로는 고장(43.9%)이 가장 많았고, 낡고 유행에 뒤쳐져서가 25.8%로 2위, 분실(8.1%), 통신사 이동(6.7%), 새기능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5.6%) 등의 순이었다.

휴대전화 구입비용은 평균 25만5천원으로, 10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5.9%, 10만~30만원 사이가 24%였다. /연합뉴스

e스포츠 프로리그 첫 지방 광주투어

3,000여 명 몰려 인기 실감
STX, SK텔레콤에 역전승

프로리그 정규시즌 첫 번째 지방투어인 광주투어에서 STX가 극적인 역전승을 장식하며 4위로 뛰어올랐다.

STX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프로리그 2008' 광주투어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세트스코어 3-2로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11승째(7패)를 달성했다.

이날 STX는 세트스코어 0-2로 뒤져있는 상황에서 팀플레이에 출전한 박종수·박성준(토스·저그)이 3세트를 잡아냈고 4세트에 출전한 진영수(테란)가 SKT의 전상욱(테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세트스코어 2-2 타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어 에이스 결정전에 나선 김윤환(저그)이 '혁명가' 김택용(프로토스)을 막아내면서 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한편 이날 대회는 한국e-스포츠협회 광주·전남지부 설립을 기념해 프로리그 정규시즌 사상 처음으로 지방투어가 광주에서 열린 것으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탓에 장소가 갑작스럽게 염주체육관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e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실감하게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정보 TIP

불매 운동글 임시조치 보류

인터넷 포털업체 다음이 광고주를 상대로 온라인에서 진행중인 불매운동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즉 25일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차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게시글의 경우 소송 등 사법절차에 앞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들을 30일간 보이지 않게 하는(블라인드) 조치다.

KTF '멀티팝업 터치' 서비스

KTF는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대기화면에 저장돼 있는 콘텐츠 아이콘을 자유자재로 옮길 수 있는 '멀티팝업 터치' 서비스를 출시한다.

멀티팝업 터치는 팝업 구동 후 '터치 기능'을 활용해 콘텐츠 아이콘인 '미니'를 손쉽게 끌어 이동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KTF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터치전용 휴대전화인 햅틱폰(SPH-W4200), 뷰티폰(LG-KH2100), 디스코폰(LG-KH6500) 등 3개 기종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 * 6464'를 입력한 후 쇼 인터넷 버튼을 누르면 된다.